



통보기



통일을 염원하는 보탑이 눈길을 끄는 보탑사.

보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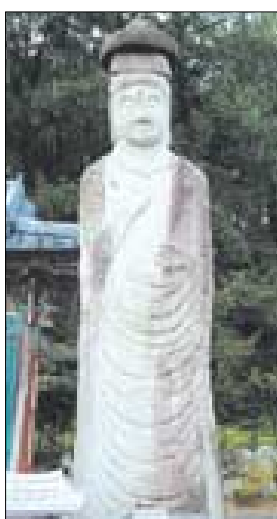
진천불교를 대표하는 사찰. 경내에 들어서면 감탄사가 저절로 나온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답고 편안한 분위기가 압권이다.

통일을 염원하며 3층까지 오를 수 있도록 지어진 150평 규모의 보탑은 보는 이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보탑 3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주변 경치가 일품. (043)533-0206

용화사

미소를 머금은 미륵부처님. 이 미륵부처님 앞에 서면 번뇌가 저절로 사라지니, 그래서 소원이 이뤄진다고 하는 것인데도 모르겠다.

전통사찰로, 진천읍내에 가까이 위치해 있어 찾아가기 편리하다. (043)533-3204



미소가 아름다운 용화사 미륵부처님.

영수사

고려시대 창건된 고찰. 진천의 명산인 두타산 자락에 위치해 있으며, 매년 부처님 오신날에만 공개되는 부처님이 영산에서 설법하는 장면을 묘사한 9m 가량 크기의 괘불(충북도 유형문화재)이 보존되고 있다. (043)532-6288



공림사는 정중하면서도 편안한 절이다.

공림사

충북에서는 법주사 다음으로 큰 사찰. 스님들과 일반인들을 위한 선방과 요사채만도 5개 동이 있다.

수려한 주변 산세와 깔끔하면서도 장중한 도량이 잘 어우러져 가람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준다. 낙영산 등산로가 걸쳐 있어 등산도 하고 사찰 참배도 하기에 좋은 여건.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에 위치. (043)833-1029

각연사

나뭇잎 속삭이는 소리와 풀벌레 울음소리만 들리는 기도하고 수행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절이다.

비로전의 비로자나불(보물 433호)과 통일대사비(보물 1296호) 통일대사 부도(보물 1370호) 등의 유물이 있다. (043)832-6148



보물 433호인 각연사 비로자나불.

보광사

한적하고 고풍스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이다. 고려 28대 충혜왕 때 창건했으나 조선 현종 때 폐사된 옛 불화사 터의 아래쪽에 건립된 전통사찰. 괴산에서 34년 국도를 타고 증평 쪽으로 가다보면 만날 수 있다. (043)833-4538

전통문화·수행 체험으로 전법 불 지핀다

충북 진천·괴산·증평

보탑사 열린음악회·용화사 미륵영산재·성림사 범패음악회 '주목'

가능성. 그건 잠재력이지 미래형이다. 하지만 누가 찾아주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발견하고 스스로 키워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현재'에 머물 뿐이다.

충북 지역 가운데에서도 유난히 불교세가 약한 진천·괴산·증평. 이 지역의 스님들은 그런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아니 자신(이)에게 "그렇다"고 말한다. 도대체 그런 엉뚱한 배짱을 부릴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드러내지는 않지만 이 지역의 스님들은 자신들의 '잠재력'을 믿고 있다. '한 번 하면 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침체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이제 해봐야죠"라는 느긋한 대답. 그런 대답이 전혀 근거없는 얘기는 아니다. 몇몇 사람들이 나름대로 사찰과 지역불교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거나 마련단계에 들어가면서 활로를 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영웅'은 난세에 나는 법. 세 지역의 스님들은 이제 지역불교의 '영웅시대'를 열기 위한 용트림을 하고 있다.

8월 18일 오전 진천 보탑사. 평일 오전인데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경내를 둘러보고 있다. 보탑사 주지 능현 스님은 서울서 찾아 온 불자들의 요청으로 함께 예불을 올린다. 예불이 끝나자 사찰 마당에 둘러앉아서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다. 두 번째 보탑사에 왔다는 불자들. 주지 스님과 마주 앉는 것은 처음이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처럼 허물어 없다.

대화가 오가는 사이 마음의 한 어린이가 아이스크림을 들고 와 스님에게 건네기도 하고, 마을 주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은 경내에 잡초가 많이 자랐으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치 자기



8월 18일 오전, 보탑사 주지 능현 스님과 서울서 온 불자들이 보탑사 경내에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다.

잡알마당처럼 다니며 잡초를 뽑는다.

불자들과 지역민에게 내 집처럼 편안한 절 보탑사. 그런 보탑사가 대중 속으로 더 파고들어갔다는 계획 아래 최근 들어 일반인들을 위한 일요일 법회와 주말 수련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능현 스님은 "보탑사를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중부권 최고의 전법도량이 되도록 하고 싶다"고 말한다.

보탑사는 지난해까지 네 차례 열었던 산사음악회도 올해부터는 변화를 줄 계획이다. 클래식과 가요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일반적인 산사음악회와 달리 전통음악공연 형태에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병행한다는 것이다.

같은 날 오후 용화사. 주지 무위 스님은 올해 음력 9월에 열 미륵영산재 기획안을 짜느라 여념이 없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미륵영산재는 지역민들에게 불교의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사찰과 지역민과의 거리를 좁히는 데 크게 기여했다. 성림사 주지 혜목 스님은 범패 음악회를 계획 중인데, 불교전통음악인 범패를 통해 불교를 대중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 세 사찰의 공통점은 불교전통을 포교의 방편으로 삼겠다는 것. 물론 전통만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시대 흐름에 필요한 포교방안 도입 필요성도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몇몇 사람들의 이런 노력이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냐는 점이다. 진천불교의 명물로 떠오른 보탑사를 중심으로 뜻을 모으려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사암연합회 결성이 필요하다. 사암연합회를 중심으로 지역불교 현안을 논의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진천불교는 지금 '내 사찰' 보다는 '지역 불교'를 우선시하는 사찰들의 인식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다.

괴산은 대표 사찰인 공림사가 지난 몇 년간 활동을 소홀히 한데다, 나머지 사찰들 역시 마땅히 지어져 그야말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을 정도. 하지만 최근 주지가 바뀐 공림사가 템플스테이와 주말 철야정진, 주말농장, 경로잔치 등 대중과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에 들어가고, 조만간 선방과 시민선원도 개원할 예정에 있어 전체적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여기에 다보사를 비롯한 몇몇 사찰들도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도심 포교당인 개심사가 합세할 경우 괴산불교의 발전 가능성은 어느 곳보다도 크다.

증평불교는 증평불교연합회가 27년간 활동해 온 연륜을 바탕으로 지역 활동을 벌이고 있고, 증평불교사암연합회는 지난해 교통안전지원제와 지역안정지원제를 지내는 등 지역민과의 거리를 좁혀왔다. 여기에도 호국충용사, 보광사, 보타사, 삼보사 등 주요 사찰들이 포교에 나서면서 나름대로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불교연합회와 불교사암연합회의 양분은 지역불교발전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증평군의 관계자들이나 지역민들도 이를 안타까워한다. 양측의 스님들도 통합 필요성을 인정하는 상태. 증평불교는 지금 '공평'이나 '공평'이라는 선택해야 하는 시점에서 서 있다.

진천·괴산·증평=한명우 기자

생활불교 저변 확대

혜목 스님
진천 성림사 주지



불교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포교활동에 나서고 있다. 대전생활 불교회 지도법사와 청주교도소 종교위원을 맡았었고, 지금은 진천경찰서 경승실장과 인근 군부대 지도법사로서 경찰과 군 포교에 주력하고 있다.

8년 전부터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키워왔을 정도로 불우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각별하며, 지금도 5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평소 매장문화의 문제점을 강조해오던 남골문화 정착을 위해 10년 전부터는 남골당을 운영해오고 있기도. 그동안 성림사를 사격을 갖춘 사찰로 일컬어, 요사채를 지어 주말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지역불교 발전의 '큰 손'

상명 스님
진천 보현사 주지



바쁘다. 태고종 충북종무원 교무국장직을 수행하기가 벅차 소임을 내놓았을 정도로.

하지만 아직도 맡은 일이 많다. 태고종 진천분원장 총무, 태고종 충북 원로스님들의 모임인 보문화 총무, 증평사암연합회 총무, 진천 태고종 스님들의 모임인 정각회 총무, 원래 회장 보다는 총무가 바쁜 법.

그러다보니 사찰 일이 뒷전일 때가 많다. 원만한 성격에 꼼꼼한 일처리로 종당과 지역에서 신임이 두둑하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보현사를 기도도장으로 바꾸었으며, 남골당도 운영하고 있다. 대웅전을 짓는 등 그동안 주력해왔던 도량정비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

지역불교 이끄는 스님들

문화 마인드·시대감각 겸비

능현 스님
진천 보탑사 주지



지역주민에게 화장품을 선물받을 수 있는 스님. 그것은 서로의 '느낌'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보탑사가 진천불교의 얼굴인 이유는 바로 그런 능현 스님이 있기 때문이다. 솔직담백하고 따뜻한 성격에 온화한 미소. 게다가 뛰어난 시대감각과 문화마인드까지 겸비했다.

보탑사를 중부권 제일의 전법도량으로 자리매김 시키겠다는 포부아래 어린이와 군 포교에 나서면서 매년 산사음악회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삼선교포교원 청년법회도 지도하고 있으며,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행원이 어려운 이웃주민들에게는 경제적 후원을 하고 있다.

이웃과 호흡 맞추기 '프로그램'

무위 스님
진천 용화사 주지



'사찰운영도 경영이고 행정이다.' 용화사를 잘 꾸러가기 위해 연세대 행정대학원에 진학했을 정도. 내친 김에 박사과정까지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공부 욕심이 많다. 5년 전 용화사 주지로 부임한 이후 침체돼 있던 용화사를 진천군의 중심 포교도량으로 탈바꿈시켰다. 사찰에서 군인법회를 열고, 또 인근 부대를 다니며 훈련병 수계법회를 하는 등 군 포교에도 열심이다. 4년 전부터는 미륵영산재를 열고 노인잔치를 개최하는 등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역 불교 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유지원

과 복지관을 갖춘 진천의 종합문화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수행 없이는 포교도 없다"

종성 스님
괴산 각연사 주지



법주사 강원과 동국대를 졸업한 이후 20년이 넘게 선방에서 수행에만 몰두해 온 수좌출신으로 무엇보다도 수행을 강조한다. 5년 전 각연사 주지 소임을 맡은 이후에도 일체의 다른 활동을 접은 채 수행에만 전념하고 있다.

최근에는 더 많은 스님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각연사를 명실상부한 수행도량으로 바꾸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각연사가 사람들에게 찾아오기 쉽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 포교도량으로 발전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는데다, 괴산에서 번듯한 수행도량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친근감 넘치는 사찰 가꾸기

혜우 스님
괴산 공림사 총무



침체돼 있는 괴산불교를 변화시킬 능력과 마인드를 갖추고 있는 괴산불교의 '희망'. 오는 9월 주지 임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혜우 스님은 공림사에 온 지 불과 두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공림사와 괴산불교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에 들어갔다.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소신이 뚜렷하고, 시대와 불교의 흐름을 읽는 눈이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대중 속으로 파고들어감으로써 불자들로부터 '공림사에 간다'는 표현이 아닌 "우리

절에 간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공림사를 친근감 있는 사찰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근까지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상임감찰을 지냈다.

증평 불교계 터줏대감

인호 스님
증평 삼보사 주지



1972년 삼보사를 창건하고 30년이 넘도록 증평에서 활동한 증평불교의 터줏대감. 1977년 증평군 불교연합회를 창립해 이끌어 오면서 불교회관을 마련하고 지역 행사에 참여하는가 하면 불우이웃 돕기에도 나서는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개인적으로는 지역 학생과 장애인에게 장학금과 후원금을 지원해왔으며, 지난해에는 사암련에서 운영한 불교요양대학 학생을 맡아 불자들을 지도하는 등 지역과 불교발전에 기여했다.

도량을 정비하고 수행공간을 마련해 누구나 와서 편히 수행하고 기도할 수 있는 도량을 만드는 것이 꿈이다.

사찰부지 공원으로 활용

대호 스님
증평 보타사 주지



"지역민과 함께 호흡해야 한다. 그래야 불교가 산다." 친근감 있는 불교를 강조하는 증평불교의 '젊은 피'. 5천여 평의 사찰 부지를 공원화해서 사찰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많아 장애인 시설 건립도 염두에 두고 있다.

증평군 불교연합회와는 다른 증평사암연합회 회장을 맡아 지역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불교의식에 관심이 많고, 이를 통해 지역포교를 활성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아래 지난해 보타사 차원에서 영산재를 열었으며, 격년제로 영산재를 정례화 할 생각이다.